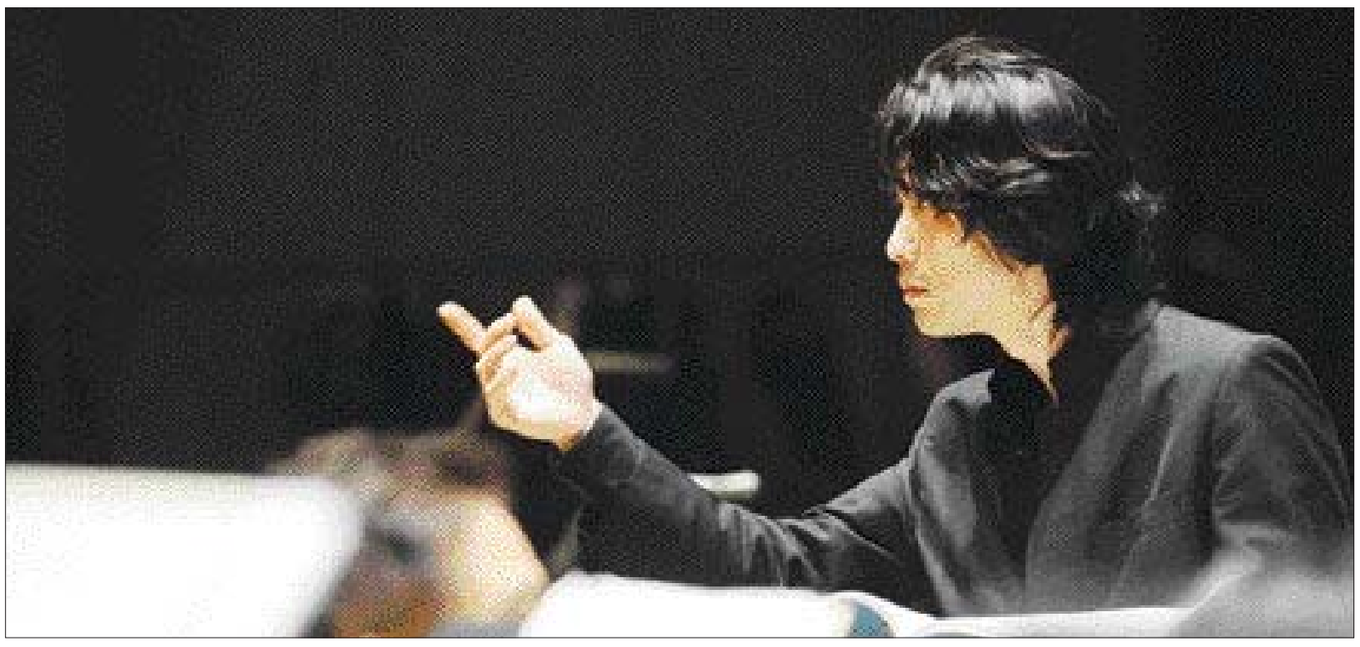
■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구자범 취임 100일

특별인터뷰

“음악은 놀이, 연주자·청중 어울려 잘 놀아야죠”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39) 상임지휘자는 현재 광주 문화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지난 3월 1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구지휘자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기공연 전석 매진, 교도소 공연 등 다양한 화제를 뿌리며 광주 문화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구지휘자를 인터뷰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249회 정기연주회 준비로 바쁜 구지휘자는 광주시향의 앞으로의 행보와 예술인의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취임인터뷰 때 음악은 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연주회에서 광주시민들과 잘 노셨는지요.

▲음악에 있어서는 연주자가 노는 것과 청중이 노는 것이 멋지게 어울릴 때 정말 잘 노는 놀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음악회 주인공은 당연히 청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인공이 잘 노는 것이 음악회의 목표입니다. 연주자는 청중이 잘 놀 수 있도록 앞에서 더 열심히 노는 것일 뿐이구요. 놀 때 그에 걸맞는 분위기가 필요하지요. 광주시향은 다같이 잘 놀 수 있도록 음악적인것 뿐만 아니라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음악회 때마다 맥주 한 잔 마시며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관객들이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서인지 맥주 한잔 할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더군요. 광주시향 음악회는 청중 모두가 음악회 ‘관계자’인 음악회가 돼 데이트와 동창회, 가족 모임 등을 하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광주시의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예산도, 인력 운용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취임 후 여러 관례를 깨고 계신데 취임 당시 광주시와 한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 문예회관내에 6개의 시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일률적으로 통일된 조례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무용단과 목청을 울리는 합창단과 악기를 다루는 교향악단 등이 정년시기는 물론 연습시간까지 똑같은 틀에 갇혀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창조성’을 담보해야 할 예술 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합리성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일률적인 조례가 각 단체 별 독립적인 조례로 바뀌기 전까지는, 제가 계획했던 그 어떤 변화도 구체화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술단체에 적용된 일률적 조례 독립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시향 변화 구체화하기 힘들어

-재임 2년간의 장기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레퍼토리는 아니더라도 밑그림은 그리셨을 것 같은데요.

▲밑그림은 그렸는데,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은 신경 안 쓰고 지휘만 하면 되었는데, 광주에서는 그렇기 힘드네요. 아주 작은 예로, 어떤 레퍼토리를 정해도 그 곡을 연주할 단원수가 부족해서 매번 객원단원을 부르는데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년에 몇 번 연주를 못하지요. 앞으로 정기연주회에서는, 평소 별로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제목만 보고 어렵거나 재미없을 것이라고 선입관을 갖게 될 법하나, 실제로 한 번만 들어보면 참 인상적으로 직접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곡들을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밤’(6월 24일)이 바로 그런 정기연주회 중의 하나입니다. 또 특별 기획 연주회에선 좀더 알려진 곡들이 중심이 될 것인데, 7월 11일 열리는 ‘영화 속의 클래식’이 그런 예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초청해 영화를 못 보는 그들에게 영화를 ‘들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에게 점수·순위 매기는 건 아주 몹쓸 짓 윤이상 음악 독일서 연주 계획

-2년간 불참한 교향악축제 참여 여부도 궁금합니다.

▲교향악 축제는 좀 더 알아보고 그 성격을 잘 파악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축제보다는 경연대회나 발표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광주시향은 광주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충실히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광주시향의 음악이 궁금하고 듣고 싶으면 광주로 오라고 할 만큼 당당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유럽사람보다는 한국사람, 한국 사람 중에서도 남도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윤이상 선생의 곡을 가지고 그가 활동한 독일 베를린에서 연주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경쟁력이라는 말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나 순위를 매기는 건 아주 몹쓸 짓입니다. 이기고 지는 스포츠가 아닌데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스스로 광주시향으로서 떳떳한가’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란 말을 떠올릴 때 ‘학생스럽다’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피우는 귀여운 장면도 연상되지만, ’학생답다’라고 하면 무언가 좀 다른 심상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참 광주시향-스럽다’라는 평범한 느낌에서 ‘참 광주시향-답다’라고 인식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향 단원의 음악적인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에 따른 음악적 성과에 걸맞게 시향 단원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경제적 처우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5·18 30주년에 연주할 ‘부활’ 연주자나 청중이나 가슴 터질 듯하게 만드는 곡

-내년은 5·18 30주기입니다. 올 5월 행사는 5월 단체간의 갈등,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임 당시 ‘5월 광주’에 대한 언급도 있으셔서 기존의 추모공연과 다른 연주회를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말러 2번 교향곡 ‘부활’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가슴이 터질 듯하게 되는 곡입니다. ‘부활’은 오케스트라 외에도 최소 300명 이상의 합창단이 필요한데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광주시민합창단’을 구성해 연주 하면 의미있는 공연이 되리라 봅니다.

-더불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노대통령 노제를 주관했던 김명곤씨의 글을 보니 국립예술단체들을 무대에 세우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예술인들의 사회적 발언, 역할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이 사회에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참 세상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할 일이지요. ‘광대’와는 달리 고금을 통해 진짜 예술가들은 대중의 취향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고, 가짜를 거부하고 자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을 제시해왔습니다. 예술가가 내놓는 ’작품’이 진짜인지 판단할 최초의 근거는, 어떤 작품을 내놓는 예술가의 앞선 ‘고민’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삶을 처절하게 고민한 후, 부조리 앞에서는 남들이 머뭇거릴 때에도 자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심과 용기가 이른바 예술가의 ‘끼’인 것이죠. 현 정권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더니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그저 사회에 고민하지 않는 ‘광대’로 만들어 놓아야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권력의 추잡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추잡한 모습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음악 이외 다른 문화 장르들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문화장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 삶의 모토 중 하나는 ‘모든 감각적인 것에 충실하자’ 입니다. 그림, 시와 연극, 와인과 커피, 요리와 향수, 눈맞춤과 입맞춤, 심지어 패션과 화장법까지 모든 감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첫 단추인 감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서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감각에는 무관심하고 음악적 감각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광주에 머무를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매우 외롭게 보냅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구자범은

▲1970년 서울 생
▲연세대 철학과 졸업
▲獨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지휘과 졸업
▲獨 하겐시립극장·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지휘자 역임
▲獨 하노버 국립극장 수석지휘자 역임